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開館三周年紀念

第 二 回

# 學 術 세 미 나

때 : 1984. 5. 2 (수)      10 : 00 ~ 16 : 00

곳 :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세미나실



# 開館 三周年 紀念

## 第二回 學術세미나를 열면서

本 民俗博物館이 開館된지도 三年이 지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本 博物館을 찾아주신 國內外 學者 및 學生 등 많은 분들로 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관심 속에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本 博物館은 특히 纖維를 주로한 전문적인 博物館이므로 所藏하고 있는 대부분의 遺物들은 外部環境(濕度, 溫度, 防蟲, 光線)에 민감하여 세심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옛조상들이 물려 준 귀중한 文化財를 效果的인 方法으로 보관하여 후세들에게 이어주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1983년 第1回 學術세미나에서는 本人의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發表와 함께 田實榮子(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主任研究官)先生을 초빙하여 纖維保存管理에 관한 論題로 國內學者 및 관계자들과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여 國際間的 學術交流는 물론 國內學者들의 많은 관심속에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저명하신 선생님들의 發表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本 博物館의 所藏遺物中에서 시급히 復原이 必要한 遺物을 復原整理하여 모아진 20여점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本人의 寄贈遺物 3,365點으로 開館을 본 本 博物館은 學校側에 성원으로 이제 4,800餘點의 遺物을 所藏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984 . 5.

館 長 石 宙 善



◇◇ 目 次 ◇◇

發表者 및 主題

1.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 3  
河 孝 吉 ( 國立民俗博物館長 )
2. 古代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16  
閔 吉 子 ( 國民大學校 教授 )
3. 舊韓末 宮中禮服 및 一般婦女服飾 研究 .....30  
( 日本 文化服裝大學 所藏品을 中心으로 )  
金 英 淑 ( 東洋服飾研究院長 )

發表者 略歷

河 孝 吉

우석大學院卒

國立民俗博物館長

- 研究論文 . 韓國海岸地方뱃告祀의 形態와 意義. 民俗學論叢Ⅱ,  
(石宙善博士 古稀紀念論文集)  
. 韓國의 鬼神·韓國民俗大觀 3輯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 民俗學의 現代的 意味·明知大學論叢 제 11輯  
. 東海岸 및 南海岸 豐漁祭·(文化財研究所)  
. 뱃고사의 서낭기에 對한 考察.  
(韓國民俗學 12輯)  
. 기 타

閔 吉 子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섬유과卒

漢陽大學校 工科大學 섬유과 博士과정 수료

國民大學校 師範大學 家政科 副教授

- 研究論文 . 이집트의 織物研究·대한가정학회지 16권 3호  
. 우리나라古代織物研究·國民大論文集 제 17輯  
. 絹織物 發祥發展에 對한 研究·國民大學論文集  
(教育論叢 제 1輯)  
. 우리나라 韃皮섬유직물의 製織技術에 對한 研  
究. 1984. 衣類學會發表.  
. 기 타

金 英 淑

서울大學校 師範大學卒, 淑明女子大學院 家政科卒

日本お茶の水女子大學院研究科修了

東洋服飾研究院長

- 著 書 . 韓國服飾史資料選集(全3卷). 1983  
. 朝鮮王朝 韓國服飾圖錄. 1984  
. 기 타

#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河 孝 吉 \*

- I. 序 言
- II. 民俗博物館의 現況과 活動
- III. 民俗博物館의 課題
- IV. 民俗博物館의 方向
- V. 結 語

## I. 序 言

博物館이라고 하는 곳은 그 나라, 民族의 文化遺産, 특히 物質文化의 遺産을 蒐集·保存하고 整理하는 곳이며 그 整理된 資料의 展示를 통해서 民族文化의 보급 선양과 傳統文化의 現場教育 기능을 지니는 곳이고, 또한 이를 研究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博物館은 그 나라의 모든 文化財의 수용과 전시 연구의 병행으로 그 民族 最高의 文化機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나아가서 한 나라의 博物館은 그 나라의 文化尺度, 富의 尺度, 教育尺度 및 生活의 尺度까지를 알게 하는 機關이 되기도 한다.

博物館 중에서도 民俗博物館은 考古·人類學博物館이나 美術博物館과는 달리 그 民族의 傳統生活資料 즉 民俗資料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現在 民俗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7個

\* 國立民俗博物館長

分野로 삼고 있다.

그 첫째가 社會分野, 둘째 通過儀禮分野, 셋째 生業技術分野, 넷째 民間信仰分野, 다섯째 民俗藝術分野, 여섯째 歲時風俗 및 놀이分野, 일곱째 口碑傳承分野 등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25個 分野로 세분하고 있는데, 자연 民俗博物館에서는 이들의 生活資料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物質資料를 남기지 못하는 口碑傳承分野만이 除外되고 있는 편이다.

本 發表會에서는 現在 우리나라의 民俗學分野 博物館의 現況과 活動, 그리고 그 問題點은 무엇이고 課題는 무엇이며 앞으로 民俗博物館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方向 設定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II. 民俗博物館의 現況과 活動

우리 民族의 生活資料를 대상으로 하는 民俗學分野의 研究나 그 資料의 蒐集·展示의 歷史는 그리 긴 편이 못된다.

近來에 와서 傳統文化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民族의 基層文化인 民俗學分野의 研究 및 資料蒐集의 時急性이 要請되고 이에 따른 資料의 展示가 이제 차츰 盛行하기 시작하는 그 첫 階段에 이른 형편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博物館 形態로 이 民俗資料의 첫 展示機能을 가졌던 경우는 1945년에 宋錫夏氏가 設立한 民族學博物館이었다. 그러나 이때만해도 民俗學이 하나의 獨立 學問으로서 發展을 보지 못한 段階였으



며, 民俗이란 用語 自體가 一般 學界에 疎 生疎한 시대였던만큼 本 博物館으로서의 機能이나 效果가 적어 결국 더 發展을 못하고 1950 年 國立博物館에 흡수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의 開館은 民俗學博物館의 先驅者的 役割을 하였으며 民俗學研究의 관심을 높여준 동기가 되었다.

1966년에는 文化財管理局에서 慶福宮 修政殿 자리에 韓國民俗館이라는 이름으로 小規模의 民俗資料 綜合展示館을 마련하여 國家機關에서 設立한 最初의 展示館이 되었다. 이 民俗館은 體系있게 分類된 展示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婚禮, 巫覡, 農耕 등 우리 風俗의 一面을 볼 수 있는 立體中心의 展示와 一部 資料中心 展示의 方法을 擇 하겠다.

한편 濟州島에서는 이보다 2년 앞선 1964년에 濟州島 蒐集의 民俗資料 45點을 가지고 濟州民俗博物館을 設立 開館하였다. 그러나 이때만 하여도 名稱上으로만 博物館이었고 島民들에게 博物館의 存在를 부각시키는데 더 큰 意義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실질적으로는 1973년에 遺物을 보완, 擴張開館하여 그런대로의 博物館 구실을 하여 왔다. 현재에는 3천여점의 民俗資料를 수장하고 있는데 消滅 直前의 濟州島 民俗資料를 保存시킨 큰 役割을 한 셈이다. 그리고 1 個人이 세운 私設博物館으로서 20년의 기간 동안 유지해온 것도 대단한데 그 동안의 調査·研究의 업적으로 12卷의 冊을 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3년에는 韓國民俗館이 主軸이 되어 韓國民俗村이 計劃되었는데, 計劃 도중 完全 民間資本으로 設立 計劃이 바뀌고 자연히 學術的인

면보다는 觀光次元으로 方向이 바뀌게 되었다. 현재 이 民俗村에서는 韓國의 傳統家屋을 두루 볼 수 있도록 移轉 복원시켜 놓았고 대장간, 工場, 市場 등의 實生活 모습도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그곳의 野外公演場에서는 씨름, 農樂, 탈춤 등 놀이나 演戲 등이 實演되기도 한다.

서울의 中央大學校에서도 韓國 및 東南亞諸國의 假面과 韓國木器類를 中點으로한 民俗資料 860餘點을 가지고 1972年, 當時 大學에서는 有一한 民俗博物館을 開館하였다. 그러나 現在에는 무슨 理由에서인지 문을 닫고 있다.

그동안 非公式機構로 開館해온 韓國民俗館은 1975年에 國立現代美術館 자리에 移轉되어 韓國民俗博物館으로 公式 昇格되면서 총 建坪 1,140여평의 規模로 擴張開館하게 되었고, 1979年 4월에는 文化財管理局에서 國立博物館으로 所屬이 옮겨지고, 1979年 9월에 內部修理와 陳列室을 보강하여 國立博物館으로서 면모를 보이려고 努力하였다.

이 民俗博物館 遺物은 住生活用具, 信仰儀禮器具, 農器具, 民俗樂器, 服飾類 등 총 6,250여점이며, 展示室은 生業室, 工藝室, 食生活室, 服飾室, 信仰儀禮室, 藝能娛樂室, 社會文化室, 中央홀 등 9個室로 마련하였다.

生業室은 農耕, 水産, 織造 등의 한 모습을 볼 수 있게 꾸몄고, 工藝室은 在來燈器 및 매듭과 華角製品을 陳列하였으며, 食生活室은 韓國民家の 전형적인 부엌과 장독간 및 시골의 酒幕, 그리고 八道飲食과 各種飲食器具, 食器 등을 볼 수 있게 꾸몄다. 그리고 住居室에는 韓國家庭의 사랑방과 안방을 꾸몄으며 服飾室은 韓國 사람들의 衣服

과 裝飾具들을 볼 수 있게 하였고, 信仰儀禮室은 韓國의 民間信仰과 通過儀禮의 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한편 藝能娛樂室은, 韓國의 유명한 農樂과 固有樂器들, 假面, 놀이 器具들을, 그리고 社會文化室은, 書堂과 漢醫院, 各種 社會文化器具들을 볼 수 있게 각각 立體 및 資料陳列의 병행 방법을 擇하였으며, 中央홀은 特別展示室 및 現代의 傳承工藝作品 展示室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1976년에는 忠淸南道 溫陽에 溫陽民俗博物館이 私設博物館으로서 設立되었다. 건평은 총 2,400평에 民俗資料 14,000여점을 가지고 4개의 展示室로 꾸몄는데 第1展示室에는 出生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사람의 일생에 관한 資料들의 展示와 食生活, 住生活, 衣生活 등을 볼 수 있게 展示하였고, 第2展示室에는 農耕生活과 織造, 사냥과 채집, 고기잡이의 器具 등을 볼 수 있게 꾸몄다. 그리고 第3展示室에는 民俗工藝, 民間信仰과 娛樂, 學術과 制度 등에 관한 資料를 展示하였으며 第4展示室은 特別展示室로 마련하였다.

1981년 5월에는 檀國大學校 石宙善記念民俗博物館이 開館되었다. 건평 총 750여평에 遺物 3,365점을 가지고 4개 展示室로 마련한 이 石宙善記念民俗博物館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服飾專門博物館이다.

4개 展示室 중 第1展示室은 婚禮服과 日常服을 展示하였고, 第2展示室에는 朝鮮朝의 宮中遺物을, 第3展示室에는 冠類, 裝身具, 신발, 首飾, 띠 種類 등을 展示하였으며, 第4展示室에는 王妃, 王子, 公主, 駙馬, 宰相, 侍女 등의 服飾을 계급별로 볼 수 있게 展示하였다. 이상의 常設展示 외에도 2회에 걸친 壽衣 特別展과 服飾에 대한 學術세미나를 열고 있다.

1983년 10월에는 京畿大學의 農耕博物館이 農器類 중심의 民俗資料 450여점의 展示로 문을 열었다. 이 農耕博物館에서는 農耕生活과 이에 따른 風俗을 볼 수 있게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등의 계절별로 展示하였다.

이 외에도 民俗博物館으로서는 濟州道에 道立博物館으로서 民俗自然史博物館이 곧 開館을 앞두고 있고, 民俗博物館은 아니지만 世宗大學博物館은 상당량의 服飾類와 木竹製品의 民俗資料를 소장하고 있으며, 高麗大學校博物館과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그리고 地方의 全北大學校와 嶺南大學校 등의 博物館도 상당량의 民俗資料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國立博物館 및 各 大學의 博物館까지 헤아린다면 상당 수의 博物館이 있지만, 그중의 民俗博物館은 國立, 私立大學博物館까지를 합해도 그 수는 다섯 손가락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적은 수의 民俗博物館이 또한 零細性을 못 면하고 있다. 研究陣이나 調查研究事業도 그 령고 資料活用 시스템은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國立民俗博物館은 그런대로 學藝研究官과 學藝研究士 등 적은 規模이지만 研究陣을 갖추고 있고, 역시 적은 規模나마 그런대로 調查研究事業도 실시하고 있다. 近來에 와서 國立民俗博物館에서는 表本地域을 정해놓고 이 地域에 대해 집중적인 民俗調查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몇 개의 表本地域을 더 설정해 놓고 차례로 民俗調查를 계속해 나갈 計劃이다.

### Ⅲ. 民俗博物館의 課題

그러면 현재 零細性을 못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民俗博物館의 問題點과 課題는 무엇인가. 그 첫째는 現存하는 所藏遺物의 科學的 保存 問題이다.

한 나라의 文化財란 특히 民俗資料란 그 나라 民族의 生活文化 즉 風俗에서부터 生業技術, 信仰儀禮, 그리고 높은 藝術性, 娛樂까지도 알아 볼 수 있는 유일한 資料이며, 이는 또한 새로운 文化發展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歷史와 傳統性에 대한 自負心과 矜持를 지닐 수 있고, 이러한 것은 곧 그 나라 그 民族의 求心力이 되어 주는 한 要素이기도 한 것이다. 博物館에서는 이 貴重한 文化財를 所藏하여 安全하게 保存시켜야하는 重大한 任務를 맡고 있는데 이 保存이 全제되지 않을 때 博物館의 存在는 無意味하며 蒐集은 더욱 無意味해진다.

民俗文化財의 保存에 있어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腐蝕의 問題이다. 이 腐蝕은 세균이나 벌레, 곰팡이류에 의한 것과 酸化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무 제품, 종이 제품, 섬유 제품, 가죽 제품 등은 특히 세균이나 벌레, 곰팡이류에 약하고 금속 제품은 酸化에 약하다.

또한 溫濕度의 差異에 의해 팽창과 수축의 과정에서 오는 組織과 열로 인한 損傷도 遺物 保存에 있어서 무서운 적이다.

높은 溫度와 濕度는 물질의 팽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세균이나 벌레, 곰팡이류의 溫床이 되어 腐蝕에 가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세균이나 벌레 또는 곰팡이류에 의한 腐蝕은 정기

적인 遺物 消毒(살포, 투약)을 함으로써 어느정도 效果를 본다고 하지만(이것도 그 부작용의 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 데이터<data>가 없다.) 濕濕度 差異에서 오는 腐蝕은 현재 零細한 民俗分野 博物館에서는 그 시설이 全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나라 기온을 겨울의 최하 온도로 섭씨 영하 15℃로 친다하고 여름의 최고 온도를 섭씨 영상 30℃를 친다해도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이는 45℃나 되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습도 역시 장마철과 겨울 건조기 때의 차이는 30%가 넘는다. 이러한 온도와 습도의 차이는 물질의 조직에 큰 變化를 주고 이 變化가 많을수록 物質의 損傷은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네 民俗博物館들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1년에 한두 차례의 원시적인 曝曬方法에 依存하였고 좀 남아진 方法이 방습제(silicagel) 또는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遺物 格納庫에 冷暖房施設로 온도를 맞추어 주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일정한 온습도의 유지가 여러 가지 遺物에 한결같이 알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發掘된 금속 제품은 상대 습도 30% 이하에 온도 15℃ 이하이어야 하며 纖維製品이나 종이製品은 상대 습도 55~60% 정도에 15℃ 정도가 알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問題는 格納庫施設이 物質別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格納庫의 온습도가 자기 物質에 알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課題가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 格納庫에는 일정시간 일정량의 신선한 외부 공기의 流通이 可能な 通風 施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可能하다면 通風通路에 먼지나 해충, 세균까지도 걸릴 수 있는 필터링(Filtering) 장치까지도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格納庫 뿐만 아니라 각 진열장에도 방습제(물질에 따라서는 건

조제), 간이온습도 조절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遺物保存에 있어서 또 한가지 問題가 빛에 의한 色相의 變質 즉 退色이다.

博物館의 任務는 遺物을 展示해서 國內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이 博物館의 한 機能이기도 하고 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展示된 物質의 모든 色相은 빛에 바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 色相이 染色된 것이나 彩色된 것은 더욱 더 빛에 의해 빨리 退色되고 만다.

民俗資料 중에서도 衣裳類나 裝身具類, 工藝品, 놀이 기구, 書畫類 등은 빛에 더욱 조심해야 할 물건들이다. 매일 공개되는 博物館 상설 전시장의 展示資料들은 지속적인 照明을 받아야 하는데 退色 방지용 電球를 사용한다해도 效果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

纖維類나 종이류, 彩色된 목제품 등에는 照明度를 50 lux 이하로 낮추게 되어 있는데, 照明燈에는 1차 자외선을 차단, 분산하는 U. V Filtering을 장치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이면 展示室 진열장 내외에 빛의 直接 照明을 피하면서 展示效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照明 方法도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民俗博物館에서의 어려운 問題로는 民俗資料의 蒐集과 調査研究의 機能 등을 더 들 수 있다.

現代文明의 急進的 發展과 現代化의 急旋回에 따라 우리 在來의 生活用具가 現代文明에 밀려 適應, 發展의 기회를 잃은 채 빛을 잃고 消滅되어 가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美術品으로서의 價値를 전혀 지니지 못한 農器具나 水産器具, 服飾類 등은 더욱 그 殘存資料를 찾

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民俗博物館에서는 現地の 좋은 資料를 蒐集하기 위해서는 시중값에 떨어지지 않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하며 자기네의 물건이 博物館에 소장되는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느끼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자기의 유물이 博物館에 소장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될 때 현지의 소장자들과 博物館에 기증할 뜻도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자료를 把握하기 위한 實態調査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民俗博物館이라면 民俗資料를 중심으로 하여 民間生活의 모습 그 機能的인 面을 展示를 통해 보여 주는 곳이다. 그런데 그 民族 전체의 일반성을 띠는 이 生活文化는 어느 일정한 시간에 停止된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變化 發展되는 活性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民俗博物館에서는 이 生活의 現場性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必要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生活文化의 現場性 捕捉을 위해 끊임없는 調査研究活動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調査研究活動의 土臺없이 단순히 어느 일정시간에 停止된 遺物 중심의 展示만을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산 博物館으로서의 機能을 잃고 있는 것이며, 단순한 骨董品展示場 이상의 더 큰 意義가 없게 된다. 따라서 民俗分野 博物館들은 각 專門分野別로 研究員들을 확보하고 훌륭한 研究員들로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 投資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問題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民俗博物館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當面課題로 안고 있는 것들이다.



#### IV. 民俗博物館의 方向

國立民俗博物館을 위시한 몇 안되는 公·私立民俗博物館들은 그동안 資料展示를 주로하고 간헐적인 特別展이나 세미나를 갖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民俗博物館들도 이제 어떤 새로운 發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이른 것 같다.

近來 海外 旅行客들의 博物館 觀覽코스-가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고 國內에서도 博物館의 機能이 높이 인식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考古美術資料 중심의 國立中央博物館이 1986년도 아시안 게임과 1988년도 세계 올림픽을 앞두고 舊中央廳 본 청사로 이전, 확장 개관되는 것도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鼓舞的인 博物館繁榮의 한 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훌륭한 시설과 조직과 다양한 機能의 外國의 유명한 博物館들처럼 발전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의 꿈이요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종래의 적은 유물에 의존하여 陳列 위주만의 博物館에서 무엇인가 活性을 떨 수 있는 博物館으로 새로운 方向을 찾아야할 그러한 時點에 다달았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 必要가 있게 되었다.

그동안 博物館은 문을 열어 놓고 많은 入場客이 들어 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였고 任務를 다한 걸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博物館에 들어와서 무엇을 얼마나 보고 듣고 갔으며, 무엇을 얼마나 느끼고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으며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으며 그렇게 유도되지도 못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研究活動, 文化活動도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狀況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나마 앞으로 民俗博物館이 生命을 지닌 博物館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면 첫째 博物館이 좀 더 積極的인 자세를 취해서 民族의 生活文化의 學習現場, 산 教育場으로 임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博物館을 자주 자주 찾아 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博物館 資料에 대한 비디오(video) 및 오디오(Audio) 器機裝置, 슬라이드 제작 및 엽서 제작, 그리고 쉽고 간단한 案内冊字를 만드는 것도 한 方法이고, 展示資料의 낱말에 대한 해설 카드를 만들고 그 해설 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을 마련하는 것도 한 方法이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冊으로 공부를 하게 한다면 博物館에 와서는 現場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學習現場으로서 뿐만 아니라 休息處 역할까지 해주는 길이다. 아늑한 休憩室의 분위기로 學習의 중간에 즐거운 休息을 가질 수 있고 사색을 즐길 수도 있으며 만남의 장소로도 좋은 곳일 수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세째는 學者나 研究者들의 求心的 역할을 해주는 길이다.

調査資料의 체계화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資料를 活用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資料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킨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네째는 民俗文化活動을 활발하게 전개시키는 길이다.

가급적 많은 기획전을 통해서 貴重한 資料를 體系있게 보여 주고

調査報告, 研究發表會, 또는 심포지움(Symposium)을 통해 우리 傳統文化의 究明과 理解, 그리고 發展의 계기를 삼도록 해야할 것이다. 視聽覺室이나 작은 강당에서는 우리 民俗의 現場을 녹화해서 보여 주거나 기획 프로를 제작해서 보여 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판소리나 우리 民謠의 감상의 시간을 자주 갖으며 公演場에서는 우리의 춤과 민속놀이 등을 보여 주게 되면 좋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博物館이 文化運動의 중심 역할까지 하는 것도 한 길이다. 民俗博物館이 主催 또는 主管하여 民俗行事를 열고 이를 승화시켜 확산 보급시키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 V. 結 語

以上으로 우리 民俗分野 博物館의 現況을 살펴 보고 當面課題와 앞으로의 方向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다. 이것은 비단 筆者뿐만 아니라 博物館의 모든 당사자가 이미 생각하고 있을 문제들이며 사항이라고 본다.

오늘 이 發表會에서 본 論題의 제기는 이제 民俗博物館도 새로운 변모의 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자는 데에 있으며,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탈출구, 方向에 대하여 積極的인 努力을 가하자는 데에 있다. 그것은 民俗博物館이 과거의 資料에 얽매인 지나간 歷史나 지나간 文化에 대한 鄉愁나 찾고 느끼는 곳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文化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연결되어야 할 文化의 脈을 튼튼히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古代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 植物性 纖維織物을 中心으로 -

閔 吉 子\*

## I. 諸 論

### II. 古文獻上에 나타난 우리나라 布織物에 대한 諸般事項

#### 1. 布織物의 種類

#### 2. 製織技術이 가름되는 織物

#### 3. 日本의 機織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機織文化圏域 問題

## III. 結 論

## I. 諸 論

古代 우리나라에서는 各種 植物性 纖維織物을 製織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織物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衣料로 사용된 외에도 外國人(中國, 回回人)들에 의하여 대단히 선호되었던 사실들이 古文獻上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中國과 같이 絹이 많이 生産되었던 나라의 경우도 漢代의 經濟書인 「監銑論」에 「비단옷은 庶民의 경우 70, 80歲가 되어야 겨우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 결국 中國과 우리나라의 경우 主衣料는 植物性 纖維織物中 特히 韃皮 纖維織物이었음이 당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本 小考에서는 「布」로 命名된 織物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우

\* 國民大學 教授

리나라 機織 技術의 特性이 나타나는 布織物을 조사하여 그 織技에 대하여 研究해 보고져 한다. 本研究를 통하여 古代 우리나라의 機織 技術의 特性과 그 程度를 알아봄을 目的으로 한다. 그리고 아울러 織物 선호의 조건을 製織織物의 狀態에서 찾아 우리 民族의 服飾美 추구의 一部分이라도 찾고져 한다. 또 布織物 製織과 그 機織을 통하여 織物 文化圈域 問題도 약간 생각해 보고져 한다.

本小考의 年代 範圍는 文獻上 布織物이 나타나는 國家成立 以前부터 우리나라 布織物 織技의 절정기로 보는 高麗時代까지로 한다.

研究方法은 文獻的 調查의 方法에 의하여 行한다.

## II. 古文獻上에 나타난 우리나라 布織物에

### 대한 諸般事項

#### 1. 布織物의 種類

時代	種 類	用 途	出 典
濊. 夫餘 高句麗. 鵞洛國. 新羅. 高麗.	布	衣服. 稅. 貢物. 下賜. 物物交換. 袈裟. 僧施主布袋. 僧襪. 僧服. 庶衣服. 衣料. 親朝之費. 互市. 徵收物. 勞賃. 佛教行事. 賚布. 婚禮下賜. 施主. 賻儀. 褒賞	後漢書東夷傳(濊傳). 三國志魏志東夷傳(夫餘傳). 北史東夷傳(高句麗, 百濟). 三國史記(百濟本記, 新羅本記, 雜誌第二車騎). 三國遺史(卷第二紀異第二鵞洛國記, 卷第三塔像第四, 塔像第四臺山月精五類聖像, 卷四議解第五良志使錫, 宣和奉使高麗圖經(第十八卷道教, 第二十三卷雜俗二, 高麗史(世家卷第三成宗, 世家卷四顯宗一, 世家卷第十二睿宗一, 世家卷第十六仁宗二, 世家卷第二十五元

時代	種類	用途	出典
高句麗.	布	貨幣. 贍學錢.	宗一, 世家卷第二十八忠烈王, 世家卷三十六忠惠王, 世家卷第四十恭愍王三, 世家卷第四十一恭愍王四, 世家卷第四十四恭愍王七, 列傳卷四十六辛禑一, 列傳卷四十七辛禑二, 列傳四十九辛禑四, 志卷十八禮六, 志卷二十二禮十, 志卷三十三食貨二貨幣, 列傳卷十七安珣).
	細布.	稅. 外人의 要求. 貢物. 國家豫算. 外人의 禮物要求	隋書(高句麗). 北史東夷傳(高句麗). 三國史記(新羅本記). 高麗史(世家卷第二十二高宗一, 世家卷第三十九恭愍王八, 列傳卷四十七辛禑二, 列傳卷四十八辛禑三, 列傳四十九辛禑四).
濊. 新羅. 高句麗. 高麗.	麻	栽培. 產物. 衣服. 衣服資料. 鞞鞅. 屨材料.	後漢書(東夷傳濊傳) 梁書(諸夷傳新羅) 魏書(高句麗傳) 南史(東夷傳新羅) 三國史記(高句麗本記, 新羅本記, 雜誌第二服色). 三國遺史(卷二紀異第二金傳大王) 雞林類事. 慈藏定律. 宣和奉使高麗圖經(第二十一卷八)
挹婁. 濊. 高麗.	麻布	產物.	後漢書(東夷傳挹婁) 三國志魏志東夷傳(北沃沮, 挹婁). 高麗史(志卷三十三食貨二科斂)
高麗.	紵(苧)	衣服. 衣服材料. 追徵. 下賜.	宋史(高麗條) 雞林類事. 高麗史(世家卷第二十八忠烈王一, 世家卷第二十九忠烈王七).
高麗.	紵布.	外國官員의 下賜. 交易. 品質表示.	三國遺事(卷第三塔像第四) 高麗圖經(第三卷城邑貿易). 高麗史(世家卷第二惠宗二, 世家

時代	種類	用途	出典
高麗.	紵	互市.贈物.外敵 의 討索.物物交 換.下賜.貢物. 手巾.佛家供養. 徵收物	卷第二十明宗二, 世家卷二十四高宗二, 世家 卷二十四高宗三, 世家卷第二十八忠烈王一, 世家卷第二十九忠烈王七, 世家卷第三十五忠 肅王八, 世家卷第四十四恭愍王七, 志卷三十 三食貨二).
	白紵.	庶民衣服.婦人服. 寢具材料.寢衣材 料	高麗圖經(第一八卷道教, 第十九卷民庶, 第二 十三卷雜俗二土產. 卷二十九卷供張二繡枕).
高麗.	白紵布.	貢物.旅費.徵收 物.移徙의 農具 費.下賜.	高麗史(世家卷第二十五元宗一, 世家卷第三忠 烈王三, 志卷三十三食貨二科斂, 志卷三十六 兵二, 列傳卷二忠烈王二).
高麗.	細紵布.	貢物.細紵布收 斂.下賜	高麗史(世家卷第二惠宗, 志卷三十二食貨一 貢賦, 志卷三十六兵二站驛).
高麗.	紋紵布.	元紋紵布求.紋 紵布貢除.	高麗史(世家卷第三十七忠穆王, 世家卷第三十 九恭愍王).
高麗.	織紋紵布	貢物.要求.	高麗史(世家卷第三十五忠肅王二).
高麗.	紗紵布.	貢物.	高麗史(世家卷第六靖宗).
新羅.	三十升紵 衫段.	貢物.	三國史記(新羅本記)
高句麗.	白疊布.	製造.	翰苑箬夷部高麗條. 성호사설제 5 권만물문.
新羅.	白氎布.	貢物	三國史記(新羅本記景文王條)
高麗.			高麗史(卷二世家惠宗條) 冊府元龜(卷記七十外 臣部朝貢五) 성호사설제 6 권만물문.

## 2. 製織 技術이 가름되는 織物

### (1) 布

布에 대하여 「小爾雅廣服」에서는 「麻紵葛曰布布通名也」라고 하여 麻, 紵葛等 韌皮 纖維織物의 指稱이었음을 알 수 있다. 韌皮 纖維類는 舊石器 時代로부터 人類가 存在한 많은 地域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廣韻에서는 「布帛也」라고 하였는데 「釋繪」에서 「…帛繪也」라고 하였음으로 결국 布가 絹織物의 指稱으로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지로 古文獻上에는 布가 單獨으로 쓰여진 경우와 纖維名 또는 그 織物의 製織狀態가 布위에 冠되어 사용된 경우가 있다. 곧, 麻布, 紵布, 葛布, 太布, 細布, 廣布, 長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외에도 藤布, 芭蕉布, 樹皮布, 穀布 等の 記錄도 보이는데 藤布는 藤皮의 製織織物이며 芭蕉布는 芭蕉줄기의 韌皮 織物이며 樹皮布는 桑科植物의 樹皮의 內皮를 나무방망이로 고루 두들겨 펴서 만든 것으로서 織物 以前의 것이다. 穀布<sup>1)</sup>는 楮布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닥(tak)」이라고 하는 植物의 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미루어 「布」는 製織織物이 아닌 原始 衣料에도 적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中國의 漢代에서 六朝에 걸친 紀元前에서 AD. 5.6 C에 걸친 時期의 文獻의 織物名에는 桐華布, 檀華布, 帛疊布가 있는데 桐華布, 檀華

註 1) 日本의 記紀에 그 產地가 新羅의 古墳時代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실 東南亞細亞와 그 延長의 南方一帶에 分布되어 있던 것임.



布는 Bombax tree 곧 木綿樹<sup>2)</sup>의 果毳로서 製織한 것이며 帛疊布는 Gossypium plant 곧 草綿나무에서 얻은 果毳로서 製織한 織物이었던 점에 미루어서 일찌기 綿布(cotton fabric)에도 布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唐書西域傳」에는 「織水羊毛爲布」라고 있어 일찌기 動物性 纖維織物의 指稱에도 布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上代일수록 布가 單獨으로 쓰여 그 原料 纖維가 區別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단 布가 織細度에 따라 織細織인 경우 細布라고 밝힘으로서 布의 品質의 優, 劣이 가름된 것으로 보아 織細織 鮮好도가 높았음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上代의 경우는 綿을 除한 植物 纖維布의 通名으로 본다. 前記하였듯이 韃皮 纖維類는 人類가 存在하였던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韃皮 纖維中 亞麻는 이집트와 그 隣接 地域에서 發展을 보았으며 麻, 紵等은 中國과 우리나라, 日本等地에서 古代로 부터 거의 같은 織造 方法에 의하여 製織 發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古文獻上에 나타나는 布는 사용 원료에 있어 그 域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위에 原始布類<sup>3)</sup>가 加하여질 것으로 생각한다.

「三國遺事 駕洛國記」에는 阿踰陁國의 公主인 許氏가 가져온 것이 錦繡綾羅, 衣裳疋段, 金銀珠玉等 不可勝記 라고 하였는데 왕후가 타고 온 배를 阿踰陁國으로 돌려 보낼 때 曷沙公等 15名에게 各 糶 十碩과 布 三十四疋씩을 주어서 돌려 보낸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

註 2) 綿은 木綿과 草綿이 있다.

3) 麻紵外의 山野에 自生하였던 織物纖維布

아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土俗 特産 織物은 곧 「布」였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三國史記」 新羅 本記 雜誌 第二 色服條에는 布에 「升數」가 表示되어 記錄된 것이 많은데 그 使用 上限線이 二十八升이다. 「升」이란 布幅 間에 經絲가 80 올이 整經된 것을 單位로 하는 布織物의 精, 麤의 程度를 나타내는 單位이므로 二十八升이란 곧 布幅 間 2,240 올이 整經되어 製織된 布이다. 물론 升數는 일정한 布幅에서 만 이 비교된다.

古代의 中國과 우리나라에서의 길이를 測定하는 데는 자의 尺度에 의하였었는데 이 古尺의 길이가 變化가 있었음으로 布의 精 麤는 使用 尺의 길이가 判明되어 布幅이 計測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sup>4)</sup> 新羅의 服飾禁制에서 許用 升數가 二十八升이었다 함은 바꾸어 그 以上の 升數를 製織 使用하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升數는 布織物 製織 技術上에서 대단히 評價되는 것이다. 中國의 「儀禮」疏에 朝服은 十五升布 冕은 三〇升布라고 되어 있고 「儀禮」喪服에서 大功, 小功의 布를 사용함이 보이는데 大功은 七·八升, 小功은 十, 十一, 十二升布로 되어 있다. 「布帛名物」에도 「…最精者三十升 最疏者三升……三十升吉服之布 十五升以降皆在凶服之限」이라고 記錄되어 있어서 當時의 布織物의 製織이 平織狀態 基準의 升數에 의해서 評價되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布織物 技術이 間接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特히 布 中에 「細布」에 대한 記錄이

註 4) 古尺考(中國)

漢書律歷志(中國)

數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貢物과 또 外人들의 禮物, 貢物 要求가 대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細布가 外人들의 憧憬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 (2) 細紵布와 紋紵布

「三國史記」 新羅 本記에 景文王이 唐에 三十升紵衫段을 貢物한 記錄이 있다. 우리나라 紵布의 極上の 升數로 보인다. 「高麗史」 世家 卷第二 惠宗條에 晋에 進奉된 細紵布가 「苧麻如雪」이라고 表現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 精함의 程度가 나타난다. 中國에 있어서 戰國時代의 長沙出土 紵布가 十八升内外인데 漢代에 이르러 「漢書」 王莽傳의 王莽時代에서 後漢代까지의 布는 大略 十升布가 많이 生産되었음이 나타난다. 元, 明以後 年代에 이르면 中國의 靱皮 纖維類 織物은 綿 織物에 의하여 衰하여지는 現狀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細布의 사용 빈도는 늘어갔으며 高麗時代( 中國의 五代, 宋元年間 )에 그 技術이 高度의 極을 이룸이 나타난다. 「高麗史」에 高麗 忠肅王과 忠穆王, 恭愍王 年間に 中國으로 부터의 紋紵布의 要求는 대단 하였다. 恭愍王 四年(1355年)에 元에 갔던 使臣이 紋紵布의 貢除를 받은 사실의 기록은 또한 紋紵布 貢物을 사양함의 恩功이 대단함을 表示하는 것이기도 하여 高麗 紋紵布의 우수성이 반증되는 것이며 따라서 製織 技術의 精巧하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列傳 卷二 忠烈王(AD1276年) 때에 한 女僧이 바친 布가 「細如蟬翼 雜以花紋」의 白苧布임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紵織物製織의 樣狀이 나타나고 있다.

註5) 여승이 바친 백저포는 그의 여종이 제직하였다고 함.

筆者가 조사한 限界에서는 中國에서 정교한 紋紵布를 製織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 (3) 四十升白氎布

四十升白氎布는 「三國史記」 新羅 本紀 景文王條에 唐나라에 貢物한 記錄으로서 남아 있다.

白氎은 「新唐書」 第222下 列傳 第147下 南蠻下에 「…王衣白氎…」이라고 있으며 「嶺外對答」 古貝條에도 「…國王服白氎」이라고 있어 白氎이 王의 衣服 材料로서 사용되었던 高級 衣料였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舊唐書」 卷197 列傳에 「有古貝草 絹其花以作布 粗者古貝 細者即古所謂白氎也」라고 있으며 「佩文齋廣羣芳譜」 卷11, 木棉條에서 織布로서 「布의 名은 하나가 아니며……屈珣, 白氎, 白縞이라고 하고… 吉貝布라고 이름이 붙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으로서 白氎이 種子毛 纖維의 果毳로서 製織된 高級 綿織物임이 나타나고 있다.

「梁書」 54, 中天竺傳에는 「金縷織成, 金皮縵 細摩白疊…」의 기록이 있어 印度에서 織細한 白疊을 製織한 기록이 있으며 「唐書」198 天竺國傳에는 「俗徒跣衣白色重 梵志種性 白疊披」라고 기록되어 印度의 佛徒들이 白色을 重하게 여기어서 白疊을 입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中國의 暹나라의 扶南(캄보디아)와 隣近諸國의 見聞記인 「吳時外國傳」에도 「諸薄國女子織作白疊花布」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晋時代의 「廣志」에도 「白疊毛織, 諸薄國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毛는 綿毛이다. 白疊에 대하여는 「梁書」 高昌傳에서 「多草木草實如繭 繭中絲如細纒名爲白疊子國人取織以爲布」라는 기록이 있음은 너무나 많

이 알려진 사실로서 白疊이 곧 오늘날의 綿布임을 이룬 것이다.

그리하여 結局 白氎과 白疊(白疊)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白疊 또한 「翰苑」의 高麗條에 「高麗記元 其人亦造錦紫地纈文者…又造白疊布」라고 기록되어 있어 翰苑의 高麗는 高句麗를 말함으로 결국 高句麗에서 白疊布를 製織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白疊과 白氎에 대한 기록은 많다.

이로서 우리나라에서 製織되었던 白疊과 白氎布가 綿 以外の 어떤 纖維로 製織되었었다는 但書가 記錄上 없는 한 綿織物(cotton fabric)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綿實을 文益漸先生에 의해서 과중 번식하기 이전 이미 오래전 부터 綿織物 製織이 이루어 졌었다고 보고 있다. 中國의 「史記」에는 이미 오늘날의 雲南省, 四川省, 廣東省, 海南道域에서 綿布가 製織되고 있던 사실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다. 이 時代의 이 地域은 포괄적 오늘날의 中國 文化圈域이 아닌 곧 黃河流域의 漢文化圈에서 除外된 楊子江 南의 閩南 文化圈 地域으로서 漢人들에 의해서 野蠻視되었던 地域이나 織物 文化上에서는 紀元後年代에 이르러는 印度의 綿과 梁의 文化와 印度의 影響下에서 발전한 東南亞 地域과 交流 北中國 織物 文化圈과는 다른 形態의 織物 文化가 형성되어 南方的인 다른 特性을 가지고 발전된 곳으로서 우리나라 織物文化, 技術研究 領域에서 빼수 없는 곳이다. 특히 오늘날까지 靱皮 纖維類 織物과 綿織物 製織에 사용되는 斜上型 地機의 同一한 分布圈域인 점에서도 關係가 研究되어져야 할 地域이며 우리나라의 綿栽培 이전 纖維 問題가 거론될 수 있는 地域이기도 하다. 中國의 경우도 綿實傳來는 宋, 元間으로 보나 이미 漢代의 많은 領

域의 暮域들에서 많은 綿物이 出土되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考古學的으로 稻作과 支石墓等 간헐적이라고는 하나 南方文化가 紀元初年代에 이미 傳來된 것이 인정된 우리나라의 경우 綿이 綿實 傳來以前 年代에서 遡及 研究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白疊, 白氎布의 製織은 織細織 織物 製織 技術이 土俗 技術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製織 分野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드디어 景文王代에 이르러서는 四十升布까지가 製織될 수 있었고 이것은 계속 土俗化하여 高麗時代까지도 貢物用 織物品目이 되었던 것으로 본다. 附記할 것은 日本의 綿의 경우 오늘날 까지에 이어진 綿種의 傳來는 文祿年間(AD 1592~96)에 이루어졌으나 사실 이미 桓武天皇時代(AD 781~806)에 三河에 漂流된 印度人에 의해 綿種子가 傳來되었으나 一年안에 滅種되고 그 후 天文10年(AD. 1541)에 폴투갈人에 의해 재차 傳來되었으나 數年後에 絶滅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文化流入의 諸過程과 樣狀을 볼 때 綿에 대하여는 숨겨져 傳하여지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3. 日本의 機織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機織 文化圈域 問題

日本의 原始 織物學者인 岡村吉右衛門氏는 各種 著書에서 日本의 機織文化는 輸入文化라고 한다.

그 渡來는 繩文晩期 弥生文化 初期인 紀元前 3. 2世紀 또는 若干 빠른 때로 본다고 記述하고 있다. 古事記, 日本 書紀, 萬葉等に 記

述된 「たく(栲, 栲, 栲, 栲)」即 日本의 原始 布名도 우리나라의 종이 原料인 穀, 楮의 呼稱인 「닥(tak)」에서 轉訛된 韓國 경유의 名詞라고 보고 있다.

大麻도 韓國 경유라고 하고 苧麻의 경우도 自生種이 있기는 하나 재배종과 그 기술은 우리나라로 부터 傳來된 것으로 보고 있다. 日本에서의 大麻와 苧의 사용은 弥生時代까지로 거슬러 가고 있음으로 우리나라의 大麻, 苧의 사용이 間接적으로 確認되는 사항이다. 또 古事記의 「苧衾(むしがすま)」 「拵衾(多久夫須麻・たくぶすま)」를 例로 들어서 韓國語의 모시(mosi)」와 日本語의 ムシ(musi)」가 同系の 言語라고 記述하고 또 日本에서 現在까지 苧麻를 一名「韓苧(カラムシ)」라고 하는데 이것도 韓國으로 부터의 技法傳播가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原始機에 이은 布織機인 地機에 대하여서도 日本에의 傳來가 우리나라에서 渡來되었다고 하고 「沖の島宗像神社寶」의 「金銅製 模造祭器」가 韓國 經由를 證據한다고 한다.

그리고 斜上型機臺의 織機에 대하여 이것이 布卷이 人體의 허리에 감기는 形態의 것이 後漢代의 華北形 織機의 原形에는 없다고 하고 이것은 閩南文化에서 그 祖形을 찾아야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織物文化는 東南亞細亞 文化圈의 樣狀을 底邊으로 하고 同時에 北方中國의 文化가 중첩되어 混合形으로 整理되어 日本에 輸入되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이 問題는 織物, 機織文化라고 하는 次元 以上인 考古學, 民俗學 크게는 人類學的인 見地에서 研究 結論지워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나

다만 筆者의 조사 결과 新羅에서 製織하여 特히 貢物로서 사용한「朝霞錦, 白氎布」의 朝霞와 白氎이 모두 南閩과 東南亞細亞, 멀리는 印度까지에 그 製織圈이 포괄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織物文化圈 研究에서 除外될 수 없는 圈域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로부터 布織機가 日本에 들어간 이 시기는 歷史적으로 中國에서는 戰國時代가 종료되는 때 秦의 勢力이 점점 강하여짐에 따라서 中國 西北部를 統一하여 咸陽에 都하고 前漢이 일어나 秦이 亡하고 長安의 都心에는 地中海에까지 達하는 西方文化와 南印度文化가 傳하여지고 揚子江 以南에는 東甌, 南越, 閩越 粵南 등으로 불리운 別個의 文化圈이 形成되어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北部에 濊, 貊이어서 高句麗가 일고 南으로는 三韓이 일어 뒤이어 百濟, 加羅, 新羅가 일어 北으로는 秦 以後 強力하여진 北中國 곧 漢文化의 波가 강하게 밀어 닥친 것으로 보나 한편 우리나라 南部에서는 南方文化가 또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미루어서 織物 내지 機織의 文化圈 領域의 問題는 兩方에서 풀어야 하며 그 위에 또한 新石器 生活年代가 BC. 5000 年代로 거슬러 올라감을 참작하여 그 以前의 原始機의 問題도 念頭에 두어 三者의 見地에서 풀어나가야 할 많은 問題가 남았음을 말한다.

### Ⅲ. 結 論

本 小考에서는 古代의 우리나라 植物性 纖維織物中 織細度を 形容詞적으로 나타내어 織物名化한 몇개의 織物을 조사하여 古代 우리나라의 製織 織技를 알아 보았다.



織技의 程度 곧 優, 劣은 같은 織物을 製織하였던 中國과 日本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三國時代 以降 우리나라의 織物 製織技術은 織細度에서 極을 이루었다.
2. 文獻上 記錄에 의하여 中國보다 織細織을 더 重하게 여겨 製織하였음이 나타났다.
3. 他의 모든 天然纖維 織物(絹, 毛, 綿)에서와 같이 日本의 靱皮 纖維製織과 그 素材도 우리나라로 부터 전하여져서 이루어졌었다.
4. 우리나라 古代에서 부터 깨끗한 細織物이 極도로 발달된 것은 곧 우리 民族이 정갈하고 섬세함을 주로 하는 端雅함에 服飾美의 焦點이 맞추어 졌었음이 나타난다.
5. 織物 文化圈 研究의 과제를 남긴다.

# 舊韓末 宮中禮服 및 一般婦女服飾 研究

— 日本 文化服裝大學 博物館 所藏품을 中心으로 —

金 英 淑\*

韓國의 服飾은 역사적 狀況으로 말미암아 海外에 所藏되어 있는 服飾들이 더러있다. 이러한 服飾들은 韓國의 服飾史 研究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服飾들도 있고 時代的인 服飾樣相을 나타내 주는 것들도 있다.

國內에 所藏 保存되고 있는 服飾 못지않게 이러한 服飾들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東京國立博物館에 所藏된 翟衣 및 紅圓衫 紅龍袍 등을 소개한 바 있다.

本考에서는 1983年 8月 13日에 조사한 日本 文化服裝大學에 所藏된 服飾遺품을 소개 하기로 한다. 東京 國立博物館에 소장된 服飾들은 王과 王妃의 大禮服임에 반하여 文化服裝大學에 所藏된 服飾들은 宮中禮服을 비롯한 기타 服飾類들이다. 특히 이들 服飾은 보관 관리가 철저하여 각 服飾들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데 保存狀態가 극히 우수하고 과학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韓國 服飾類 중에서 唐衣 3점, 圓衫 1점, 團領 1점, 두루마기 1점, 저고리 4점, 어린이 색동저고리 1점, 까치두루마기 1점, 배자 1점, 치마 2점 등 주로 표의(表衣)와 기타 수저

\* 東洋服飾研究院長

집, 타래버선, 염낭 등의 소품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服飾類는 11종, 24점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材質 구성 문양 등 形態的인 특성을 살펴 보도록 한다.

## 唐 衣

唐衣는 본래 朝鮮時代 宮中에서 小禮服으로 着用하였고 一般 婦女子들은 禮服으로 着用하였던 겉옷이다.

唐의 遺制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고리의 形態와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조선초에 부인복의 變化가 일어날 때 形成된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唐衣의 材質은 一般的으로 초록색 緞감에 다홍색 안을 넣고 자주색 고름을 달며 소매끝에 흰창호지를 넣은 거들지를 달았다.

당의에 관한 문헌기록들을 살펴 보면 삼국 고려의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고 朝鮮時代의 <閒靜堂集>에

所謂長背子 引爲長袖 兩裾相掩 兩腋不縫者 與今丈夫長襦 略同稍短之 則當爲短背子 卽今之唐衣也<sup>1)</sup>

(長背子を 인용하여 長袖를 만들되 兩裾는 서로 가지려고 兩腋은 꿰매지 않는 것이 지금 丈夫의 長襦와 대략 동일하되 그 보다 조금 짧다고 한 것을 보면 마땅히 短背子가 되어야 하니 지금의 唐衣이다.)

註 1) 閒靜堂集 卷之七 雜著

라 하여 그 形態를 설명하고 있다. 즉 當代의 唐衣는 背子에 소매를 달고 양옆이 트여 있으며 長襦보다는 짧은 것으로 把握된다. 또한 李穡의 <增補 四禮便覽>에는 ‘衫子 俗稱唐衣 長至膝 袖狹女子常服’이라 했고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按新婚婦所着唐衣 名裯衣 前裾短後裾長 對襟方領狹袖<sup>2)</sup>

(신부가 입은 당의는 염의라고도 하는데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길다. 맞설에 방령이고 소매가 좁다.)

라 하였는데 이는 당의와 활옷을 혼동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光海君 日記>에는

傳曰會命婦時 入參人服飾 在平時則 當用長衫首飾矣 今則日期臨迫 勢難及措依壬寅年嘉禮時禮以涼耳掩唐衣使之着入侍<sup>3)</sup>

(왕이 분부하기를 명부들의 모임에 입참하는 사람의 복식은 평시는 마땅히 장삼수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만은 날짜가 긴박하여 형세가 만들기 곤란하므로 임인년 가례 때의 예에 따라 얇은 이엄과 당의를 착용하고 참여하라)

하여 命婦의 婦女들이 嘉禮時 着用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기록들에서 17세기 초에도 현재의 유품과 같은 形態의 唐衣가 存在했음을 알 수 있다.

博物館에는 唐衣가 3점 所藏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색채도 원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形態도 원형 그대로였으며 전혀

註 2)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3) 卷二十九 二年五月(1609年)

구김살이 없었다.

### 唐衣 1 ( 사진 1 )

본 唐衣는 여름용이며 걸감은 연두색 花紋紗로 하고 안은 홍색 갑사로 지었다. 양어깨의 상단과 앞길의 하단에는 梅花, 唐草 등의 花紋과 壽福의 글자문이 金箔되어 있다. 그밖에 여백에는 壽·福 두 글자만을 金箔하였다. 옷고름은 다홍색 紗로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壽福紋이 金箔되어 있다. 이 수복문양은 수명 장수와 萬福을 누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吉祥語紋으로 朝鮮時代 服飾 뿐만 아니라 家具, 裝身具類에도 흔히 사용한 문양이다.

또한 가슴·등·양어깨에는 補가 부착되어 있는데 五爪龍을 수놓았다. 補의 바탕천은 옷의 천과 동일한 색의 緞이며 龍의 形態는 정면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 듯하다. 자수의 技法은 전통적 자수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용의 하단에는 三山·不老草·波濤무늬 등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다. 또한 龍의 주변엔 각 색의 雲紋이 가득하고 金絲로 마무리하였다. 이 補의 形態나 紋樣, 繡의 技法, 혹은 唐衣의 바느질 솜씨로 보아 德惠翁主가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 唐衣 2 ( 사진 2 )

이 唐衣는 3, 4세의 어린이가 착용했던 것으로 귀여운 느낌을 주는 옷이다. 材質은 연두색 紗이며 옷전체에 壽字와 福字만이 金箔되어 있을 뿐 여타의 문양은 없다. 고름은 진한 자주색이며 五爪龍을 金箔한 補가 귀엽게 달려있다. 補에 金箔된 용의 形態는 상당히 圖案化되고 있는 느낌이 있으며 테두리는 원형으로 처리하되 內線은 24개의 능(稜)으로 나타내고 있어 特異하다. 補의 바탕은 진

한 하늘색이다. 또한 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엔 연두색 色絲를 꼬아 만든 고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앞섶을 여미는데 사용한 것 같다.

### 唐衣 3 ( 사진 3 )

본 唐衣는 <唐衣 1>과 같은 문양의 唐衣이다. 다만 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옷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걸감은 石榴·花紋이 있는 緞이며 안감은 홍색 緞이다. 고름의 색깔은 꽃자주이다. 거들지에도 金箔이 되어 있으며 겨울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상의 唐衣 3점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은 形態的인 면에서는 큰 變形은 없으나 걸감이 같은 연두색 계통이지만 차이가 있고, 안감 역시 홍색을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補의 형태도 金箔으로 대신한 것이 있었음은 물론 옷감의 색과 補의 바탕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화되었던 服飾의 규제에서 어느 정도 狀況과 개성에 맞도록 변이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圓 衫 ( 사진 4 )

圓衫은 統一新羅時代부터 婦女들이 着用해온 表衣이다. 身分階層이 뚜렷한 朝鮮社會에서는 色感과 紋樣에 差等을 두어 착용하였는데, 皇后는 黃圓衫을, 王妃는 紅圓衫을, 公主·翁主·班家婦女들은 草綠圓衫을 입었으며, 庶民層 婦女들도 婚禮式에는 草綠圓衫을 입었다.

形態에 관해서는 李穡(1680-1746)의 <四禮便覽>에

圓衫 卽大衣 用色絹或袖爲之 備要所謂圓衫 卽家禮之大袖而俗制圓衫 則對衿 後長前短 又於袖端 以彩帛施數層 謂之燕香袖 詭異不經 若去

燕香袖 前後無長短 得與裙齊則爲有袖背子<sup>4)</sup>

(원삼은 곧 큰 옷이다. 색깔있는 絹이나 혹은 명주를 사용하여 만든다. 비요(備要)에 원삼은 가례의 大袖라 하였는데 시속에서는 원삼을 만들면 옷깃을 맞대어 뒤는 길고 앞은 짧게 한다. 또 소매 끝에 채색 비단을 두어층 대고 이를 연향수라 하는데 괴이하고 적당치 못하다. 만일 연향수를 없애고 앞뒤의 길고 짧은 것이 없어서 치마와 더불어 가지런히 한다면 소매 있는 배자가 될 것이다.)

라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착용례에 관하여는 李衡祥의 <瓶窩集>에

東俗以舉頭美 草綠圓衫 珠履裙爲內命婦上服 以女帽 草綠圓衫 珠履裙爲女喪上服 以於汝美 草綠唐衣爲外命婦及士女進見上服 以舉頭美 紅長衫 珠履裙爲昏女上服 以盖頭 圓衫爲新婦禮時乳媪上服<sup>5)</sup>

(우리풍속에 거두미·초록원삼·주리군으로써 내명부의 상복으로 하고, 여모·초록원삼·주리군으로써 女喪上服으로 하고, 어여미·초록당의로써 외명부와 사녀진현 상복으로 삼았으며, 거두미·홍장삼·주리군으로써 昏女上服으로 삼았고, 盖頭·圓衫으로 신부혼례시 乳媪의 上服으로 삼았다.)

라는 기록이 보인다. 즉 소매가 넓고 맞깃이며 한삼이 달려 있는 초록원삼은 내명부·외명부의 上服으로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圓衫(사진 4)은 연두색 길에 색동 소매

註 4) 李緯：四禮便覽 卷之三 喪禮陳襲衣

5) 李衡祥：瓶窩集 卷五 答尹進士考彥

에 한삼이 달려 있는 원삼이다. 걸감의 연두색 紗에는 卍字와 囀字를 融合하여 만든 둥근 文字紋과 花紋이 바탕에 직조되어 있다. 안감은 홍색 紗이며 뒷길의 襟은 진한 홍색이다. 소매는 홍·황·남·꽃자주·연두색의 순으로 색동을 이어 붙였고 白汗衫이 부착되어 있다. 본 원삼은 繡나 金箔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소매를 완전히 색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안감은 홍색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서 庶民들이 혼례 때 착용했던 것이며. 소박하게 보여진다. 색은 약간 퇴색하였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 團 領 ( 사진 5 )

團領은 朝鮮時代 文武官吏들이 常服·公服으로 着用했던 것이 둥근 袍이며 一般人들도 婚禮服으로 着用하였다. 職品이 있는 者의 公服을 袍로 稱하고 錄事·諸學生徒·書吏·別監·引路·羅將 등 無品者에게만 團領이라 稱하고, 品職者의 袍는 品階에 따라 색을 구분하였으며 品職者 이외의 것은 靑이었다.

李裕元의 <林下筆記>에 보면

宣祖三十二年 始定黑團領之制 初國俗有官者皆着紅團領 堂上以上服淡紅絹表單 堂下則用深紅綿布表單(中略) 倭亂以後(中略) 今海氣已息 國內粗定 自明年爲如 一齊冠帶以復平時之規 於是使有官者皆服黑團領 稍遵華制<sup>6)</sup>

(선조 32년에 비로소 흑단령의 제도를 정했다. 국초의 風俗은 버

註 6) 李裕元：林下筆記 卷 15 文獻指掌編



슬있는 자는 모두 흑단령을 입되 堂上 이상은 淡紅絹表單을 입고 堂下는 深紅綿布 表單을 입었는데(중략) 임진왜란 후(중략) ‘전쟁이 끝나고 나라 안이 대강 안정되었으니 내년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관대를 평시의 규제로 회복한다’ 하여 벼슬있는 자로 하여금 모두 흑단령을 입게 하고 차츰 중국의 제도를 좇게 하였다.)

하여 團領의 색깔 변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高宗 때에도 조정의 모든 官員의 관복을 오로지 흑단령으로 하고 대소의 朝儀에 進見할 때와 宮內外의 公故가 있을 때에는 胸背를 달아서 文武와 階品の 區別을 삼도록 하였다.<sup>7)</sup>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團領(사진 5)은 婚禮服으로 着用했던 것으로 겉은 藍色紗로 되어 있으며 안은 홍색 疋羅로 되어 있다. 고름 역시 겉과 안이 각각 남색 홍색으로 되어 있다. 이 團領 역시 전혀 퇴색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團領을 입을 때는 紗帽와 胸背·角帶·木靴를 같이 착용했으나 團領만이 保存되어 있다.

#### 두루마기(周衣)

두루마기는 본래 朝鮮時代 士大夫들이 外出服으로 사용하던 道袍에서 변형된 것으로 소매를 좁게 하고 양 무릎 막아 만든 겉옷이다.

高宗 31년(1894)에 朝臣들의 통상예복에 周衣·褶襖를 입도록 하였는데 黃玑의 <梅泉野錄>에 보면

註7) 高宗實錄 高宗 21年 閏5月 24日

勸上變衣制 一從簡便 此乃富強之首務(中略) 私服廢道袍 直領警衣  
之等廣袖 貴賤咸用窄袖周衣(中略) 於是國中叫囂 人情不服(中略) 君  
臣相距 朝廷摧然 漸次 退推至是始頒中外<sup>8)</sup>

(왕께 의복제도를 변경할 것을 전하면서 다함께 간편하게 하는 것  
은 이것이 곧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중략) 사복은 도포·직령·창의 등의 소매가 넓은 것은 모  
두 없애고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같이 소매가 좁은 두루마기를 입  
도록 하였다.(중략) 이에 나라 안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의 감  
정은 날카로와져서 복종하지 않았다.(중략) 임금과 신하간이 서로 멀어지  
고 조정은 틈이 벌어지더니 점차 가라앉게 되어 이에 이르러 비  
로소 중외에 반포한 것이다.)

하여 당시 관리들의 의식구조를 짐작케 하며 복식을 편리성 보다는  
권위 혹은 미의식에서 착용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같이 男性들이 주로 착용한 두루마기는 女性들의 外出이 자유로  
워지면서 예의를 갖추고 방한의 目的으로 두루마기를 착용키 시작  
하였는데 계절에 따라 材質과 색감을 달리하여 개성있게 착용했다.

博物館에는 3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각각 춘추용과 겨울용으로 모  
두 여성이 착용했던 것이다.

춘추용 두루마기(사진 6)는 연분홍 紗로 되어 있으며 안감은 백  
색 노방을 사용하였다. 연분홍의 은은한 색깔이 고아해 보이며 단아  
한 느낌을 준다.

註 8) 黃玹：梅泉野錄，卷一，上 甲午以前

겨울용 두루마기 ( 사진 7 )는 호박단으로 되어 있는데 분홍색 花紋이 직조되어 있다. 안감은 연분홍색 명주를 사용하였다. 2점 모두 바느질이 섬세하고 우수하다.

#### 까치두루마기 ( 사진 8 )

어린이의 돌이나 명절 등의 경사스러운 날에 입힌 두루마기이다. 소매는 색동으로 되어 있고, 깃은 홍색, 셔츠는 노랑색, 길은 연두, 무는 홍색의 모본단으로 되어 있다. 안감은 연분홍 명주로 되어 있으며 허리에 홍색의 띠를 매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까치두루마기를 착용할 때는 남자의 경우 虎巾을 씌우고 여자는 굴레를 씌우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까치두루마기라 할지라도 남녀의 區別은 깃을 달리하여 구별하였는데 남자아이는 남색 깃을 여자 아이는 자주색 깃을 했다. 이 옷은 1910 년도 전후의 것으로 추측된다.

#### 저고리

저고리는 上代부터 한국 남녀복식의 기본이 되어온 上衣이다. 博物館에는 양단 솜저고리, 반회장저고리 및 색동저고리 각 1점과 겹저고리 2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5점의 저고리는 연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도 있겠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현재에도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양단 솜저고리 ( 사진 9 )。 壽字紋과 花紋이 직조된 고동색 양단으로 겹을 하고 안은 남색 명주로 되어 있다. 이 저고리의 특색은 동정·셔츠·소매 끝 등에 가는 흑색선을 댄 것이다. 이러한 저고리의 변형은 여타의 저고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저고리에 美

的인 변화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반회장저고리(사진 10)는 연한 노랑색 生庫紗로 걸을 하고 깃, 고름, 끝동에 홍색의 회장을 달았다. 노랑색 저고리에 홍색회장을 달았기 때문에 고아하고 기품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교한 바느질 솜씨와 그 기법으로 미루어보아 궁중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접저고리(사진 11)

生庫紗를 사용하여 걸감을 하고 안감은 모시로 하였다. 걸감의 바탕 문양은 花紋과 壽紋이다. 안고름은 꽃분홍으로 되어 있다. 이 저고리 역시 바느질 솜씨가 상당히 치밀하고 정교하여 宮이나 士大夫집 부인이 착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접저고리(사진 12)

남색 끝동이 달린 꽃분홍 저고리이다. 바탕에 꽃문양이 직조된 官紗로 걸을 하였으며 안감은 흰 명주이다. 안고름은 연두색 紗이다. 저고리의 색감과 끝동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과 품위를 느끼게 한다.

색동저고리(사진 13)

저고리의 소매와 섶를 색동으로 한 귀여운 어린이의 저고리이다. 색동은 자주·청·분홍·남·황으로 되어 있고 섶도 마찬가지로이다. 깃과 고름은 자주색으로 되어 있으며 ‘彭祖之壽 汾陽之慶 同攸福百’ 등의 글자문이 금박되어 있는데, 팽조는 堯의 신하로 殷의 末年까지 700년을 살았다는 仙人인데 그와 같이 長壽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사용된 文字이다. 또한 汾陽은 요임금이 분양에 와서 仙人과 만나고 나서 황제의 자리를 물려 주었다는 故事에서 나온 말로 그와 같은

경사가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사용된 것이다. 또한 옷고름에는 壽福의 吉祥語紋이 금박되어 있고 소매끝·어깨·섶 등에는 花紋이 금박되어 있다. 이러한 색동저고리는 돌이나 명절등의 경사스러운 날에 女兒에게 입혔다. 금박이나 색동의 형태 등에서 士大夫의 어린이 저고리로 추측된다.

이상의 저고리 5점은 자기 다른 特徵과 美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고상한 기품과 품위를 유지해 주고 있으며 끝동저고리는 世宗大 博物館에 同一한 유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바느질 법과 염색기법 등에서 서민들이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宮이나 士大夫집에서 사용한 것들이라고 본다.

#### 치마

치마는 남색과 홍색 두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남색 대란치마(사진 14)는 花紋緞 네 폭으로 지었으며 大襴단은 금박하였다. 금박의 폭은 아랫단이 11 cm, 윗단이 15 cm인데 윗단에는 石榴紋과 花紋·百福·多男의 紋樣이 금박되어 있으며 아랫단에는 梅花와 壽福등의 문양이 금박되어 있다. 허리 끈은 폭 6 cm 정도 되는 백색 花紋緞으로 달았으며 길이는 左右 똑같이 88 cm 정도이다. 끈에는 끝의 시접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다홍색 스란치마(사진 15)는 다홍색 生庫紗 4 폭으로 지었으며 치마 끝에 스란단이 금박되어 있다. 국화·연꽃·모란 등의 花紋과 壽千歲·多男 등의 文字紋이 금박되어 있다. 치마 허리는 백색 명주로 하였으며, 허리 끈 길이는 왼쪽이 141 cm, 오른쪽이 100 cm이다.

이와같은 치마도 신분에 따라 문양을 달리하여 대례복이나 소례복을 착용할 때 입었다.

#### 背子 ( 사진 16 )

남자용 비단 背子가 1점 소장되어 있는데 그 형태적인 면에서 특징을 이룬다. 어깨가 좁고 소매 쪽이 상당히 넓게 파였으며 가장자리에 흰색과 분홍의 가는 선을 들렀다. 또 요즈음의 조끼와 달리 주머니도 달려 있지 않고 깃 끝의 좌우에 검은 끈을 달아 간편하게 여미도록 되어 있다. 아마도 집안에서 간편하게 입도록 디자인된 것 같다.

#### 타래버선 ( 사진 17 )

어린이용 타래버선 세점이 보존되어 있다. 2 점은 각기 세로로 누빈 천으로 버선의 형태를 만들었고 또 한점은 누빈 간격이 더욱 촘촘하며 세로선과 사선으로 누볐다. 버선목에는 남색끈을 부착하였으며 끝에도 남색선을 대었다. 버선등에는 여러가지 색사로 꽃을 수놓았으며 코에는 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이 역시 까치두루마기에서와 같이 남자의 버선은 남색술을, 여아는 홍색술을 달아 구분하였다. 바늘 땀수와 누빈 간격이 일정하며 섬세하게 누벼진 솜씨는 상당히 뛰어나며 美的價置가 있다.

#### 주머니 ( 사진 18 )

주머니는 夾囊이라고도 하는데,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고유 복식에서 염낭의 역할은 컸다고 본다.

주머니는 단순히 작은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實用的 目的外에 하나의 장신구로서도 큰 역할을 해왔다. 즉 수를 놓는다거나 매듭이나 술을 장식하여 미적인 수공예품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는 주머니는 두루주머니로 분홍과 홍색의 두가지가 있다. 분홍색 주머니에는 사슴·거북·파도·구름·소나무 등의 十長生紋이 수놓여 있으며 끈은 국화매듭으로 길게 장식하였다. 홍색의 주머니에는 연꽃들이 화려하게 수놓여 있으며 남색 끈에 다홍·연두·노랑색의 술이 달려 있다.

#### 수저 주머니 ( 사진 19 )

수저집은 衣服類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수의 기법이 특출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수저집은 3점이 보존되어 있는데 1점은 남색 비단으로 하였고 나머지 2점은 홍색 공단으로 지었다. 남색 비단으로 만든 수저집 (19-1)의 문양을 살펴 보면 앞면엔 ‘壽八千春秋’를 中央에 수놓고 양옆에는 모란과 不老草를 수놓았다. 하단에는 三山·波濤·不老草를 중앙에 두고 좌우에 蝙蝠紋이 수놓여 있다. 뒷면에 萬壽無疆과 壽福康寧·蝙蝠紋이 수놓여 있다. 또 1점의 수저집 (19-2)은 도안이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윗부분엔 ‘康寧’ 2글자가 수놓여 있고 연꽃·물고기·물오리·파도·三山·蝙蝠紋등이 좌우 대칭을 이룬다. 뒷면엔 불로초·연꽃·蝙蝠이 수놓여 있다. 또 다른 수저집 (19-3)은 연꽃 위에 2마리의 새가 날고 있는 모습과 바위, 파도, 오리 등을 수놓았고 남색 끈이 달려있다. 이와같이 수저집에도 정성을 다하여 한 울 한 울 수를 놓고 행복과 장수를 기원했던 선인들의 정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수저집 역시 오동나무 상자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

였으며 그들의 과학정신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日本 文化服裝大學에 所藏되어 있는 服飾 몇 점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1920년 전후의 服飾들로 일본 침략기에 일본으로 유입되어 간 것으로 본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것과 큰 차이는 없으며 단지 그 천과 바느질 기법이 홋이나 양반계층에서 사용했던 것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여타의 문화재들과 마찬가지로 國外에 소장되어 있는 服飾들의 소재를 밝히고 색출하여 정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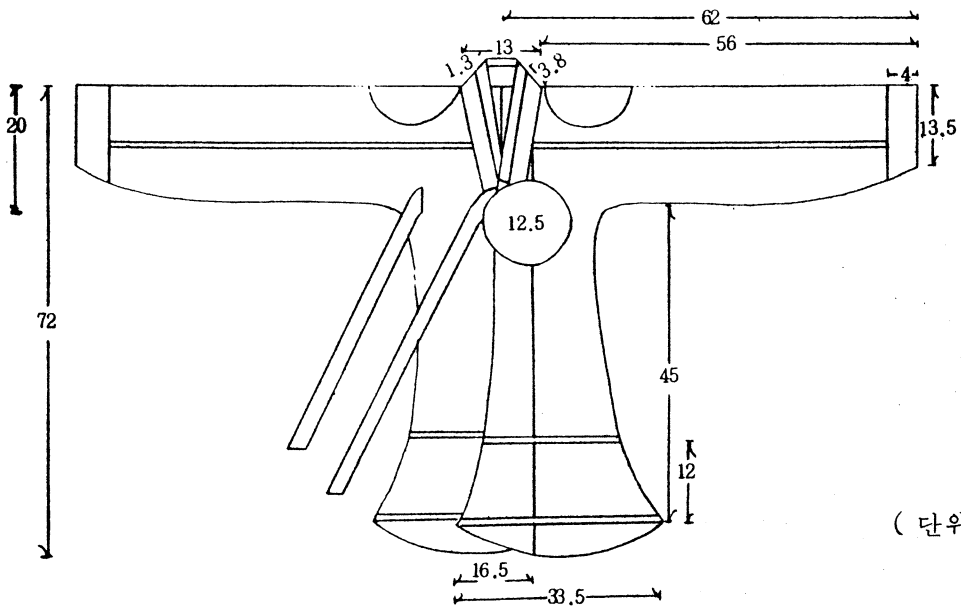
스라이드            22    매



唐衣 ( 사진 1 )



唐衣 ( 사진 1 )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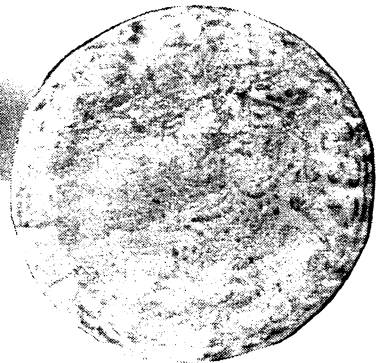


( 단 위 cm )

唐衣 ( 사진 2 )



補



길이 40 cm

폭 23 cm

화장 34 cm

補 10 cm

唐衣 ( 사진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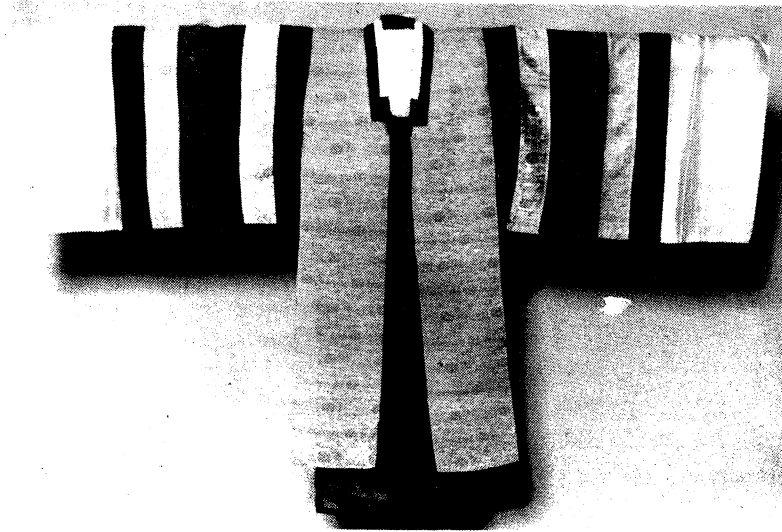


길이 55 cm

폭 20 cm

화장 50 cm

圓衫( 사진 4 )



길이 117 *cm*  
품 40 *cm*  
화장 86.5 *cm*  
진동 26 *cm*  
소매넓이 49.5 *cm*

團領( 사진 5 )



길이 122 *cm*  
품 48 *cm*  
화장 73.5 *cm*  
소매넓이 39.5 *cm*

두루마기 ( 사진 6 )



길이 112 *cm*

폭 50 *cm*

화장 63.5 *cm*

두루마기 ( 사진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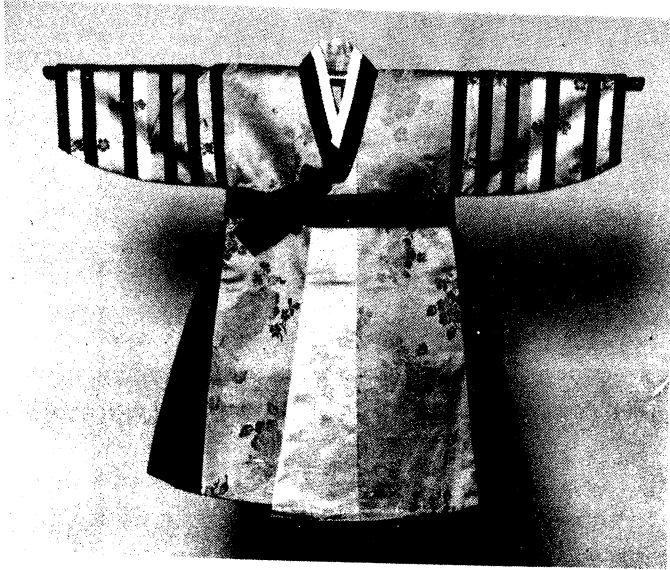


길이 3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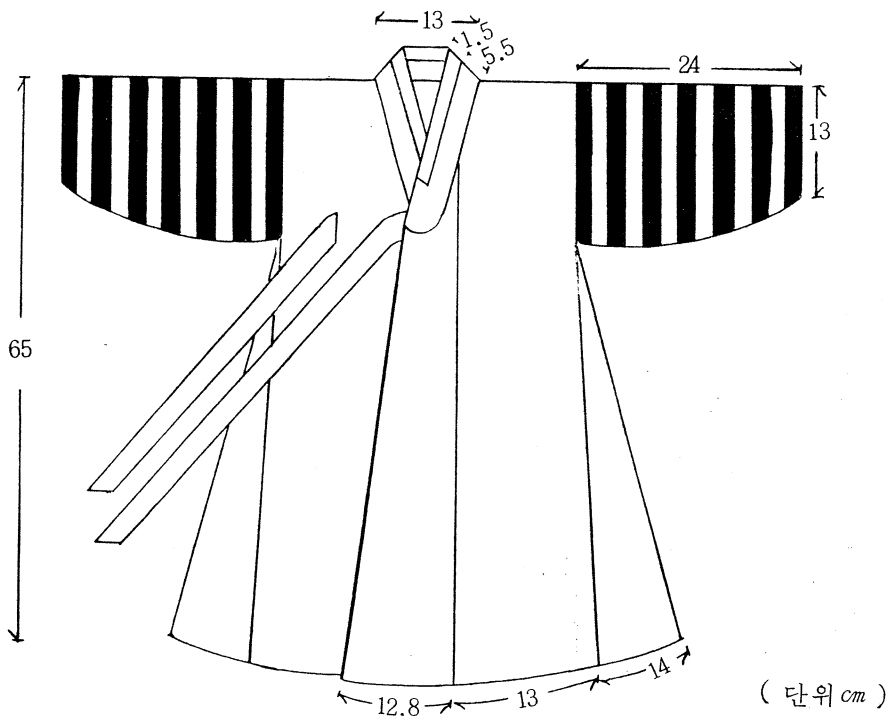
폭 4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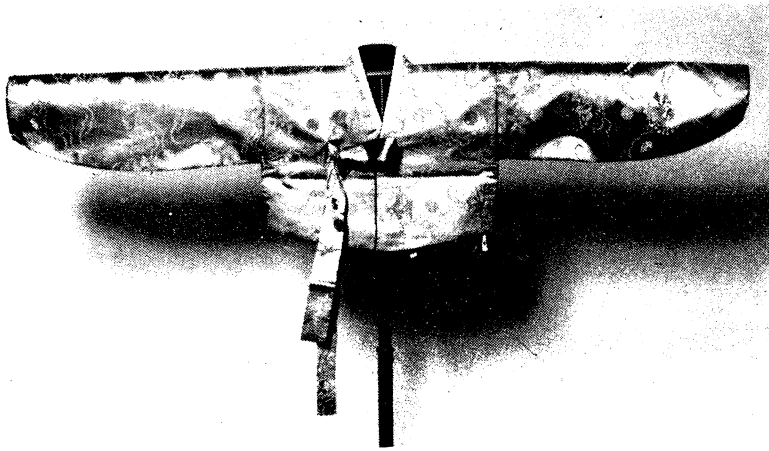
화장 59.5 *cm*

까치 두루마기 ( 사진 8 )



까치 두루마기 ( 사진 8 )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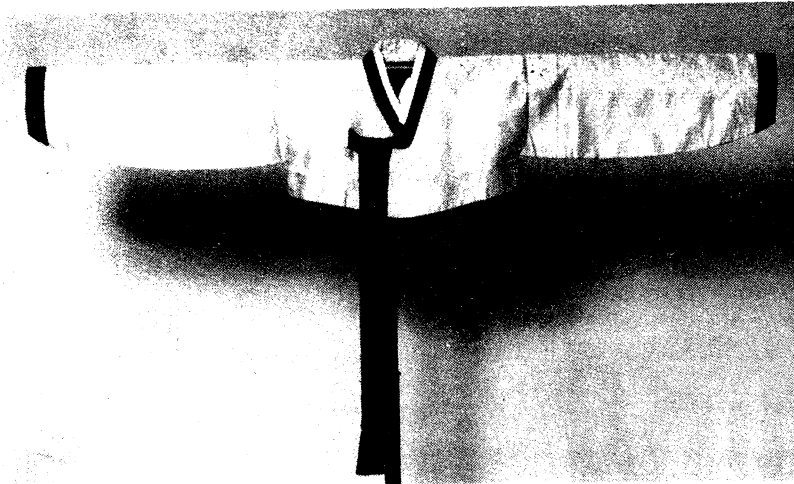


솜저고리 ( 사진 9 )

길이 35.5 *cm*

폭 41 *cm*

화장 7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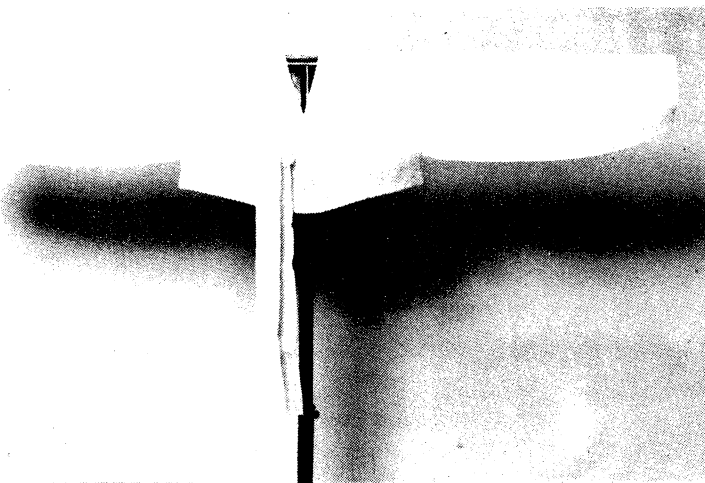


반회장저고리 ( 사진 10 )

길이 24 *cm*

폭 40 *cm*

화장 60.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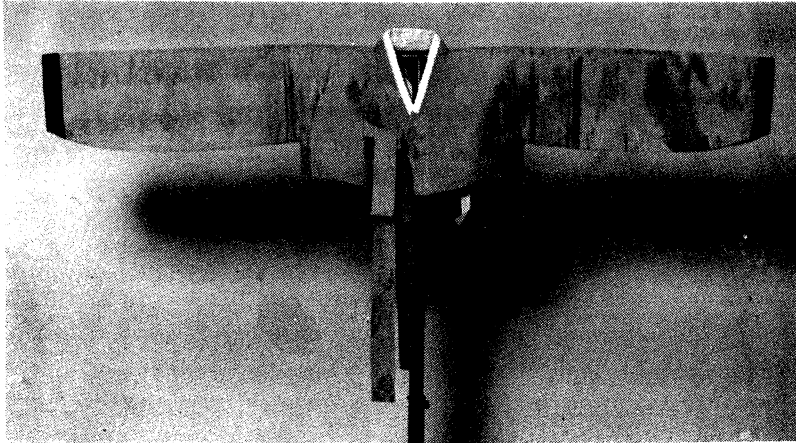


겹저고리 ( 사진 11 )

길이 37.5 *cm*

폭 48 *cm*

화장 68 *cm*



곁저고리 ( 사진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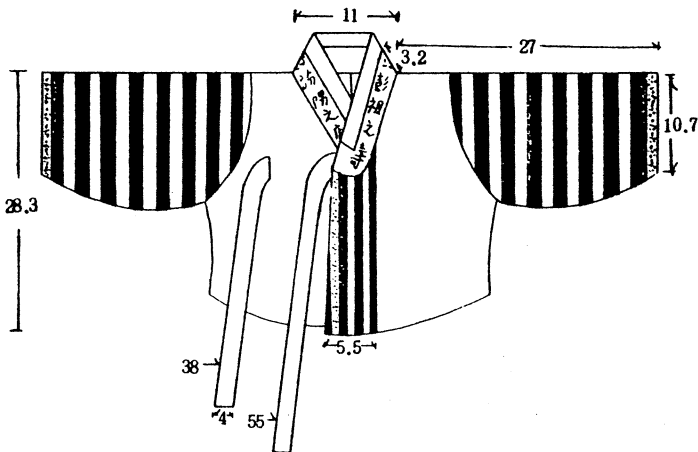
길이 24 cm

폭 43 cm

화장 59 cm



색동저고리 ( 사진 13 )



색동저고리 ( 사진 13 )

제도 ( 단위 cm )



대란치마 ( 사진 14 )

길이 146 *cm*

폭 280 *cm*

허리 71 *cm*



스란치마 ( 사진 15 )

길이 104 *cm*

폭 266 *cm*

허리 8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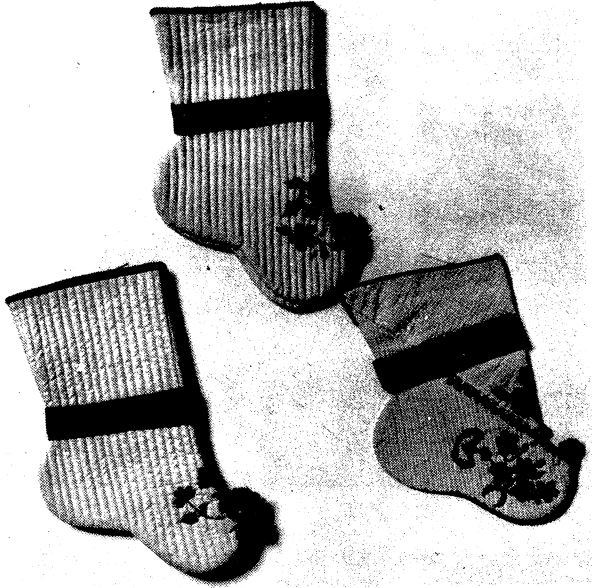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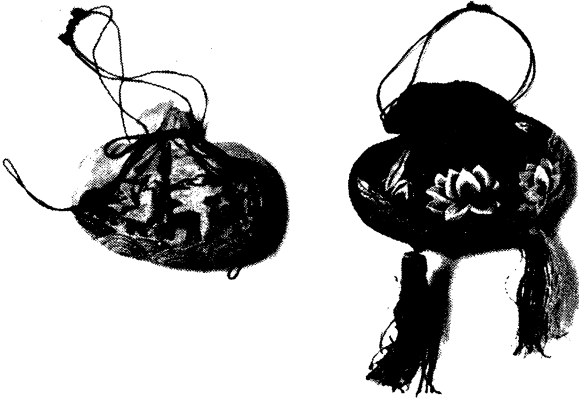
배자 ( 사진 16 )

길이 4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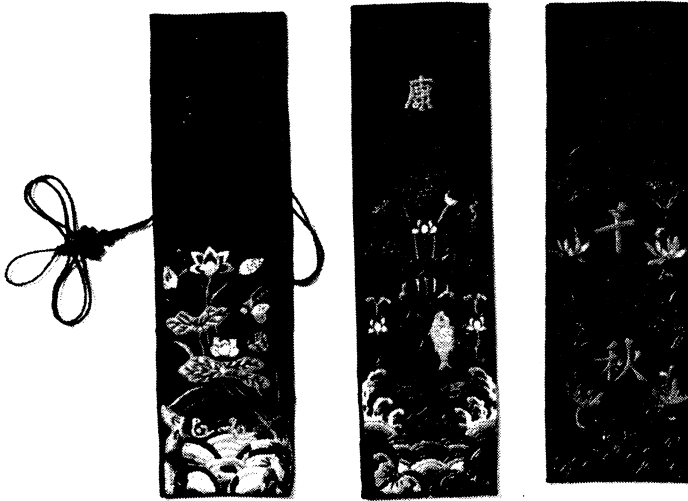
폭 52 *cm*



타래버선 ( 사진 17 )



염낭 ( 사진 18 )



수저집 ( 사진 19 )

(19-3)

(19-2)

(19-1)





# 朝鮮朝 衣裳 復原 展示

期：1984.5.1~5.4

곳：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중앙홀

## 復原衣裳 名稱

袞龍袍.	絳紗袍.	黑龍袍.	金冠朝服.	中致莫.
官服.	鶯衫.	天翼.	具軍服.	深衣.
戰服.	傳令服.	長衫.	四襟衫.	道袍.
활옷.	圓衫.(王室用)		圓衫.(民間用)	
唐衣.	장옷.	치마저고리	2 벌	

총 22 점





